

## 요한복음의 ‘여자’(γύναι)의 이해와 번역에 관한 소고

김형동\*

### 1. 들어가는 말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그의 어머니를 ‘γύναι’로 부른 점과 이에 따른 해석과 번역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어떤 경우에는 원문과 번역 사이에 매우 큰 거리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sup>1)</sup> 성서 번역과 관련하여 요한복음의 ‘γύναι’는 “의미 영역은 종종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일치되게 번역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주 어구의 의미를 반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의 특별한 실례로 간주된다.”<sup>2)</sup> 예수가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γύναι)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어색하고 이상하다. 하지만 γύναι라는 호칭은 분명 그 자체로 무례한 표현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γύναι로 부르고(요 4:21; 20:15),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γύναι라고 일컫는 것(마 15:28)은 γύναι가 정중한 표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sup>3)</sup>

\* Drew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hd9191@hanmail.net](mailto:hd9191@hanmail.net).

- 1) 스티브 버네킹, “번역사회학과 번역가의 핵심적 역할”, 김형동 역, 「성경원문연구」 41 (2017), 304-324, 특별히 304. 특별히 성서 번역과 관련하여 버네킹(S. Berneking)은 1) 본문, 언어적 요소; 2) 역사, 문화적 요소; 3) 인지적 요소; 4) 사회학적 요소라는 네 가지 필수적 요소들에 유념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2) 거트 M. 네퍼,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아의 견해”, 김형동 역, 「성경원문연구」 39 (2016), 437.
- 3)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The Anchor Bible 29 (New York:

LSJ에 따르면, “*γυνή*는 호격으로 (사용될 경우) 존경과 애정의 용어로… 마님, 부인… E. *Med.* 290, *Theoc.* 15.12, etc.”을 가리킨다. 하지만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γύναι*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γύναι*로 부르는 예를 헬라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sup>4)</sup>

성서 번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한 나이다(E. Nida)는 일평생 *γύναι* 번역에 천착하였다. 나이다는 *γύναι*가 존경과 애정을 담고 있기에 어떤 언어권에서는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sup>5)</sup> 보이노프(V. Voinov) 또한 실제적 화용론적 입장에서 요한복음에서 *γύναι*를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석의와 번역 원칙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sup>6)</sup>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γύναι*로 일컫는 호칭은 당시의 언어 관습을 벗어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거리감을 드러내 보인다.<sup>7)</sup>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γύναι*라는 표현이 가족이라는 측면에서의 애정을 담고 있기에 어머니로 번역할 수 있다는 주장은 *γύναι*라는 표현이 근본적으로 당시의 언어 관습적 화용론을 벗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화용론적 접근이 아닌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을 요구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요한복음 2:4와 19:26의 ‘*γύναι*’ 문제를 요한복음의 텍스트 자체의 서사 구조와 요한 전승 내에서 그 이미지가 가지는 타당성을 밝힘으로써 *γύναι*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γύναι*가 요한복음의 서사 구조 안에서 분명한 기능을 가지고, 더 나아가, 요한공동체의 전승을 반영한다면, *γύναι*를 굳이 어머니로 번역하여 그 특징을 거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sup>8)</sup> 필자의 판단에는, 요한복음에서 *γύναι*는 전승을 반영하는 이미지(*Bildfeldtradition*), 곧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Doubleday, 1966), 99; 거트 M. 네퍼,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438; J. M. Lieu,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JBL* 117:1 (1988), 65.

4) E. Dickey, *Greek Forms of Address: From Herodotus to Luci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86-88; 거트 M. 네퍼,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439;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99; 참고, R. J. Watts,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5) *γύναι*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나이다(E. Nida)가 피력한 견해에 대해서는 거트 M. 네퍼,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435-437을 참조하라.

6) V. Voinov, “Revisiting Vocative *γύναι* in John 2:4: A Plea for Linguistic Realism”, 「성경원문연구」 42 (2018. 4.), 157-172, 특별히 158.

7) J. M. Lieu,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65.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각주 25를 참조하라.

8)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99.

“세상과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Weltanschauung and Lebensanschauung)을 표현하는 ‘매개체’,<sup>9)</sup> 곧 “두 다른 영역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독자로 하여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상징이 나타내는 실재와 신비,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다리”이다.<sup>10)</sup> 요한복음 전체는, 도드(C. H. Dodd)에 따르면, “상징(성)의 복잡한 네트워크”(intricate network of symbolism)에 의해 함께 묶여 있다.<sup>11)</sup> 치머만(R. Zimmermann)은 이러한 상징성을 확인하는 준거로 ‘언어 관습적 타당성’(conventional plausibility)과 ‘본문 타당성’(textual plausibility)을 제시한다: “상징(들)이 언어 공동체의 관습에 의해서만 바르게 정의된다면 텍스트(들)은 그 깊은 의미가 이해되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적 전승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상징적 전승이 실제로 특별한 텍스트의 배경을 형성하는지는 단지 텍스트 자체로부터의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그러므로 필자는 본 본문에서 ‘γύραι’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첫째, 요한복음의 γύραι 번역에 대한 일련의 주요 연구들을 고찰할 것이고, 둘째, 요한복음 내에서 2:4와 19:26이 속한 텍스트 자체의 문학적 정황, 즉 본문 분석을 통하여 γύραι라는 용어가 가지는 본문 타당성과 언어 관습적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요한복음의 서사 구조 내에서 γύραι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적 차원, 즉 상징의 중요성을 드러낼 것이다.<sup>13)</sup>

9)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화적 영역의 상징들은 일반적으로 세상과 사회와 삶의 견해를 표현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R. A.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180-198, 특별히 182; P. E. Wheelwright, *Metaphor and Real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2), 105; C. H.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133-143, 특별히 143.

10) A.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201.

11) C. H.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143.

12) R. Zimmermann, “Imagery in John: Opening up Paths into the Tangled Thicket of John’s Figurative World”, 1-46; J. Frey, J. G. van der Watt, and R. Zimmermann, eds.,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Terms, Forms, Themes, and Theology of Johannine Figurative Language* (Tübingen: Mohr Siebeck, 2006), 21, 특별히 20-24.

13) 컬페퍼(A. Culpepper)는 요한복음의 서사적 디자인 내에서 언어의 상징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A.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특별히, 180-198; C. Koester, *Symbolism in the Fourth Gospel: Meaning, Mystery, Community*, 2n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D. A. Lee, *The Symbolic Narratives of the Fourth Gospel: The Interplay of Form and Meaning*, JSNTSup 95 (Sheffield: JSOT Press, 1995).

## 2. γύναι 이해

### 2.1. 주요 연구들: 나이다와 보이노프<sup>14)</sup>

일평생 성서 번역에 헌신한 나이다는 수많은 경우에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저자와 공동으로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의 뜻과 번역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에 따르면, 어떤 언어권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는 것이 모욕적인 것으로 자기 어머니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5)</sup> 따라서 그는 그러한 언어권에서는 예수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또는 ‘나의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sup>16)</sup> 심지어 나이다는 “사실, ‘γύναι’의 용례는 예수가 보다 공식적인 용어,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보다 더 많은 애정을 담고 있다.”라는 강한 주장을 펼쳤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어머니의 요청에...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가?...그러한 용어는 예수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에게 신실했었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책망을 내비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서 헬라어 시대에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존경과 애정을 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자’의 사용은 예수가 보다 공식적인 언어, ‘어머니’를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애정을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로 다른 언어를 판단하는 치명적 실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sup>17)</sup>

나이다는 “그리스어에서 γύναι는 영어 단어 ‘woman’보다 훨씬 더 호감을 갖는 친분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뜻을 가지므로”<sup>18)</sup> γύναι의 사용이 정중함

14) 주요 연구에 있어서 나이다와 보이노프(V. Voinov)를 지목하는 것은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γύναι’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퍼(G. M. Knepper)의 경우는 나이다의 ‘γύναι’연구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머물고 있으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15) B. M. Newman and E. A. Nid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John*, UBS Helps for Translators 26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80), 57.

16) J. S. P. Louw and Eugen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1:109.

17) E. A. Nida, *God's Word in Man's Language* (San Francisco: Harper & Low, 1952), 67-68.

18) E. R. Wendland and E. A. Nida, “Lexicography and Bible Translation”, J. P. Louw, ed.,

과 공손함을 보인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보이노프 또한 문맥 화용론, 말뭉치 분석(corpus analysis)의 성격, 청자의 기대감과 같은 언어학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요한복음 2:4에서 'γύναι'를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석의와 번역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sup>19)</sup> 그는 요한복음 19:26의 문맥에 근거하여 요한복음 2:4에서도 예수가 같은 지각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sup>20)</sup> 보이노프는 요한복음 19:26의 문맥적 정황이 “그[예수]는 단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는 그의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역할을 행하고” 있으므로 요한복음 2:4의 번역에 있어 예수의 대답이 “거리감이 아닌 극도의 존경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1)</sup> 그러므로 그는 실제적 화용론적 입장에서 어떤 언어에 있어서는 γύναι를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sup>22)</sup>

하지만 요한복음 2:4에서 'γύναι'를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석의와 번역 원칙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보이노프의 결론은 그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먼저, 보이노프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문맥적 정황이 예수가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sup>23)</sup> 그는 그 근거로 요한복음 2:4, “τί ἐμοὶ καὶ σοί”(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표현이 거리감을 드러내는 보편적 표현이 아님을 제시한다.<sup>24)</sup> 그는 “τί ἐμοὶ καὶ σοί”의 히브리적 표현인  $\text{לִי וְלָךְ}$ 이 역대하 35:21에서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님을 그 예로 든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역대하 35:21에서 히브리적 표현,  $\text{לִי וְלָךְ}$ 은 현 사건에 대한 두 왕의 관계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표현 자체는 애굽 왕 느고의 출정 자체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τί ἐμοὶ καὶ σοί”는 평화롭게 머물고 싶거나 강한 부정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관용구에 대한 번역이다(왕상 17:18; 막 1:24; 마 8:29; 눅

---

*Lexicography and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on*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5), 18.

19) V. Voinov, “Revisiting Vocative γύναι in John 2:4: A Plea for Linguistic Realism”, 158.

20) Ibid., 163.

21) V. Voinov, “Pronominal Theology in Translating the Gospels”, *The Bible Translator* 53:2 (2002), 216-217.

22) V. Voinov, “Revisiting Vocative γύναι in John 2:4: A Plea for Linguistic Realism”, 162.

23) Ibid. 맥휴(J. McHugh)는 예수의 이러한 태도를 '효도'(filial piety)라고 한다. 참고. J. McHugh, *The Mother of Jesu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5), 403.

24) Ibid., 163.

8:28).<sup>25)</sup>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에서의  $\gamma\upsilon\nu\alpha\iota$ 라는 용어가 아들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준다는 주장과 요한복음 2장에서의  $\gamma\upsilon\nu\alpha\iota$ 라는 용어 역시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친근감을 함의한다는 주장은 문맥의 ‘상황 인식’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보이노프는 말뭉치 분석에 있어서  $\gamma\upsilon\nu\alpha\iota$  용어 분석의 규모(corpus size)를 문제 삼는다. 2017년 가을에 조사된 고대 그리스어 분석의 1억 1천만 용례 규모는 5억 2천만의 미국 영어 용례 규모와 25억 옥스퍼드 영어 용례 규모에 비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gamma\upsilon\nu\alpha\iota$ 로 부른 것을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논리를 펼친다.<sup>26)</sup> 이러한 그의 논리는 고대 언어 규모와 현대 영어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시대착오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제를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의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sup>27)</sup>

셋째, “그의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역할을 행하고” 있다는 보이노프의 주장은 ‘왜 예수가 그의 어머니를  $\gamma\upsilon\nu\alpha\iota$ 로 부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gamma\upsilon\nu\alpha\iota$ 라는 용어는 비록 그것이 불손함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헬라 문헌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문제성의 어투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sup>28)</sup> 과연 요한복음 19:26의 문맥적 상황에서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역할”을 행함이 요한복음에서의  $\gamma\upsilon\nu\alpha\iota$ 를 해석하는 주요 열쇠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가족적 관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가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을 때…그것은 가족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다.”<sup>29)</sup> 나이다의  $\gamma\upsilon\nu\eta$  연구의 50년을 분석한 네퍼(G. M. Knepper)는 마지막 문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gamma\upsilon\nu\alpha\iota$ 가 ‘어머니’를 뜻하는 용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점은 정확히 본문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명백히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25) 배재욱, “요한복음에 나오는  $\gamma\upsilon\nu\alpha\iota$ 에 대한 소고”, 『신약논단』 9:3 (2002), 782; 최홍진, 『요한복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98;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99; J. M. Lieu,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65. 리우(J. M. Lieu)는 사 11:12와 대하 35:21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26) V. Voinov, “Revisiting Vocative  $\gamma\upsilon\nu\alpha\iota$  in John 2:4: A Plea for Linguistic Realism”, 165.

27) 단지 고대 그리스어 용례 분석의 규모가 현대의 영어 용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근거로 “본문 이외에  $\gamma\upsilon\nu\alpha\iota$ 가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예를 발견할 수 없다”는 네퍼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논증을 ‘입증 책임’의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28)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99; 거트 M. 네퍼, “ $\gamma\upsilon\nu\alpha\iota$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439.

29) G. Kittel and G. Friedric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64), 777; 최홍진, 『요한복음』, 98.

견해를 피력한다.<sup>30)</sup> 배재욱 역시 우리말 성경 『새번역』본이 γύναι를 어머니로 번역한 점에 대해서 “그러한 시도는 γύναι란 원어에 대한 번역의 어려움은 피해갔지만 원어의 의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sup>31)</sup>

한편, 배재욱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 있어서 ‘γύναι’를 ‘여자’로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대안으로 존경과 거리감을 담고 있는 ‘부인’이라는 표현을 제안한다. 그는 부인이라는 말은 정경부인, 숙부인처럼 존경을 담은 표현이기에 “부인이라는 말보다 더 적당한 번역은 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한다.<sup>32)</sup> 배재욱이 제안하는 부인이라는 용어는 존경을 담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말 어법에서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또한 부인이라는 번역은 요한의 전반적인 문학적 정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인’이라는 번역이 ‘여자’라는 번역에 대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 2.2. 문학적 정황

자신의 어머니를 ‘γύναι’로 부르는 이 이상한 호칭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문학적 정황, 즉 전승의 기록 단계로부터 기인한다.<sup>33)</sup> 요한복음 2:4와 19:26은 ‘평행 용례’이다. 요한복음 2:4와 19:26이 속한 본문(요 2:1-12; 19:25-30)은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두 본문으로 요한의 특수 자료에 속한다. 예수의 어머니는 익명으로 제시되고, ‘사랑하시는 제자’ 역시 익명으로 제시된다.<sup>34)</sup> 두 본문의 또 다른 공통점은 ‘포도주’의 등장이다.<sup>35)</sup> 요한복음에서 두 번 등장하는 포도주의 언급은 ‘때’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포도주가 없다는 그의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요 2:4)라고 대답하신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때’가 다시 언급되며(요 19:27), 예수는 십자가 상에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30) 거트 M. 네퍼,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445.

31) 배재욱, “요한복음에 나오는 γύναι에 대한 소고”, 781.

32) Ibid., 783.

33) 거트 M. 네퍼,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433: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질문은 더 이상 요 2:4와 19:26에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를 마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부르고 있는 점이 아니라,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이다.” 네퍼의 이 결론은 γύναι의 뜻과 번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들을 시사한다.

34) 마리아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의 어머니’(2:1, 3), 혹은 ‘그의 어머니’(2:4, 12; 19:25)로 언급된다(J. M. Lieu,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62).

35) 요한복음의 묘사와는 대조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막 15:23; 마 27:34).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다. 두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지상 사역의 틀로서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으로 수미상관구조(*inclusio*)를 이룬다. 그렇다면 첫 사역은 마지막 사역에 대한 예고이며, 마지막 사역은 첫 표적의 반영(성취)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요한복음의 서사 구조에 대한 윤곽은 요한복음의 서사에 있어서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는 점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표현은 확실한 거리감을 드러낸다. 예수가 드러내는 이 거리감은 어머니와의 개인적이고도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을 제시한다.<sup>37)</sup> 요한복음 19:26이 속한 단락은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는 기사(요 19:23-24)와 예수에게 마실 것을 주는 기사(요 19:28-30)에 의해 앞뒤로 둘러싸여 있다. 이 두 기사에서 요한복음만이 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시편 구절(시 22:18; 69:21)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점을 강조한다(πληρωθῆ[요 19:24]; τελειωθῆ[요 19:28]).<sup>38)</sup> 요한복음은 또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πάντα τετέλεσται)는 확인을 한 후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점을 언급한다. 요한복음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의 불분명한 ‘큰 소리’(막 15:37)를 대신한 것으로 예수께서 아버지가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τὸ ἔργον τελειώσας)는 요한복음 17:4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십자가 상에서의 자신의 어머니를 γύναι로 부르고 ‘사랑하시는 제자’와 자신의 어머니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이야기는 예수의 아들로서의 효도라는 역사적 사건의 회상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의 성경의 성취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보냄을 받은’ ‘아버지-아들’의 예수의 정체성의 관점을 보여준다.<sup>39)</sup>

36) J. M. Lieu,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69. 이 두 본문의 서사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A.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133을 보라.

37) 안셀름 그윈, 『예수, 생명의 문』, 김선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58; R. E. Brown, *The Gospel of John I-XII*, 107.

38) C. H.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428; 안셀름 그윈, 『예수, 생명의 문』, 209-210. 카슨(D. A. Carson)은 ‘본문의 앞과 뒤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을 표현하는 동사, ‘τελέω’(19:24, 30)와 짝을 이루어 성경이 성취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석한다. 하지만 24절은 ‘τελέω’ 동사가 아니라 ‘πληρώω’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참고,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Leicester: Apollos, 1991), 620.

39)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620; C. H.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428; R. Zimmermann, “Imagery in John: Opening up Paths into the Tangled Thicket of John’s Figurative World”, 35-36;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926. 뵐겔(J. A. Bengel)은 γύναι라는 호칭을 “주님에게 특별히 어울리고(19:26) 아마도 고유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J. A. Bengel, *Gnomon novi testamenti: in quo ex nativa verborum vi simplicitas, profunditas, concinnitas, salubritas sensuum coelestium*



둘째, 두 본문 모두 ‘여자’와 ‘때’를 언급하는 점은 여자와 때를 동시에 언급하는 요한복음 16: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 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여기서 그 ‘때’는 구원의 기쁨의 때를 가져오는 여자의 산고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γύναι’로 불리는 예수의 어머니는 사랑하시는 제자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상징적으로) 산고 후에 기쁨으로 새 백성을 탄생시키는 시온을 기억나게 한다(사 49:20-22; 54:1; 66:7-11). ‘여자’의 이미지는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고전적 상징이기 때문이다.<sup>40)</sup> 예를 들면, 시온은 어머니(여자)로서(사 49:21; 50:1; 66:7-11; 호 4:5; 바룩 4:8-23),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미 4:9-10; 비교, 사 26:16-18; 렘 4:13; 13:21; 집회 48:19[21]). 구약성서에서 종종 이스라엘이 여자로 묘사되고 있듯이(사 26:17-18; 66:7),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면서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의 면전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계 12:5). 이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후, 용의 분노는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고 있다(계 12:17).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어머니의 역할은 거의 묘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많은 무리들의 대표나 상징적 인물로 해석한다.<sup>41)</sup>

*indicatur* (Tübingen, 1855), 317; 배재욱, “요한복음에 나오는 γύναι에 대한 소고”, 781-782에서 재인용.

40) J. 매싱버드 포드, 『요한계시록 A』, 앵커바이블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332;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108; T. L. Brodi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74.

41) 각주 42-44, 46 참조. 예를 들어, 브라운(R. E. Brown)은 예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요한복음의 두 명의 위대한 상징적 인물”로 묘사한다(R. E. Brown, *The Community of the Beloved Disciple: The Life, Loves and Hates of an Individual Church in New Testament Times* [New York: Paulist Press, 1978], 196). 심지어 요한복음의 본문은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만일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면,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는 주후 4세기에 이르러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을 맡긴 것과 같이, 예수는 자기 대신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겼다는 것이다. 암브로스(Ambrose)는 예수의 어머니에게서 교회의 신비를 발견한다. 예수의 “보라, 어머니이다”라는 말씀이 “어머니로서의 교회, 교회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진리를 함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4세기 이후의 주된 해석이었다. 또한 교회의 역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발아래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가나 혼인 잔치의 마리아의 역할에서 각 개인의 영적 어머니성(motherhood)을 주장한다.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는 유대교<sup>42)</sup>, 유대적 그리스도교<sup>43)</sup>, 새로운 이브와 교회<sup>44)</sup>에 대한 상징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징성을 찾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두 장면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여자’라는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여자’라는 용어는 요한복음의 서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여자’는 일차적으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의 관련성을 드러낸다.<sup>45)</sup> 첫 번째 표적 기사에서 여자로 불리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요 2:1-2).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요 2:11). 십자가에 달린 예수 가까이에 네 명의 여자 가운데는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여자로 불리는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더불어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한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여자로 불리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의 영광을 목격한 증인이 된다.<sup>46)</sup>

둘째, 요한복음은 ‘γύναί’라는 용어를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 혹은 담지자(bearer)에게 적용한다. 이러한 이해는 요한복음에서 γύναί라는 용어가 예수의 어머니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sup>47)</sup>

42) R. H. Strachan, *The Fourth Gospel: Its Significance and Environment*, 3<sup>rd</sup> ed. (London: SCM Press, 1941), 319; E. F. Scott, *The Fourth Gospel: Its Purpose and Theology*, *The Literature of the New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08), 74-75.

43) R. Bultmann,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G. R. Beasley-Murray, trans. (London: SCM Press, 1955), 673.

44) E. C. Hoskyns, “Genesis I-III and St. John’s Gospel”, *JTS* 21:83 (1919), 211-212;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109;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XXI*, *The Anchor Bible 29A* (New York: Doubleday, 1970), 926.

45) T. L. Brodi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171. 브로디(T. L. Bordie)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요 2:1-12)을 등장인물에 따라 세 장면으로 나눈 슈나켄부르크(R. Schnackenburg,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C. Hastings et al., trans. [New York: Seabury Press, 1980], 334)의 구분에 대해 ‘제자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였음을 비판한다.

46) 한편, 맥휴는 예수의 어머니를 “신앙의 원형과 모범”(the prototype and exemplar of faith)으로 이해한다(J. McHugh, *The Mother of Jesus in the New Testament*, 403). 리우는 예수의 어머니의 참된 역할은 예수의 지상 사역의 처음과 끝을 묶어주면서 부활 후 예수의 사역과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주장한다(J. McHugh, “The Mother of Jesus in the New Testament”, 70).

47) C. S. Kee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Vol.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502, n. 98 참조; 키너는 ‘의명성’과 ‘여자’의 중요성을 감지하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매우 중요한 두 명의 등장인물’이라는 점과 ‘제자도의 긍정적 모델’이

예수의 어머니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담지자(bearer)로서 그 일로 인해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요 2:11). '사랑하시는 제자' 역시 "너희(제자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요 20:31)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증언자이다. 사마리아 '여자' 또한 증언자이다. 여자는 동네로 들어가 예수의 소식을 전하였고, 그래서 그 여자로 인하여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요 4:39). '여자'로 불리는(요 20:13) 막달라 마리아 또한 부활한 주를 만났음을 제자들에게 전한 증언자이다(요 20:18).<sup>48)</sup>

셋째, '여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나타낸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요 19:26-27)라는 '계시 양식'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계시 양식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특별한 구원적 임무를 계시하고 있다.<sup>49)</sup>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죽음을 목격한 두 증인인 '여자'로 일컫는 예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양자 결연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예수의 두 증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부활하신 주께서 '여자'로 일컫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라고 하신 말씀에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로 일컫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확증된다.<sup>50)</sup>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요 1:13) 난 자들로 '위로부터' 곧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요 3:3, 5). 이러한 이해는 'γύναι' 호칭이 등장하는 모든 본문에서 증거된다.

필자는, 요한복음에서 '여자'는 예수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제자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이런 이해는 여자가 '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가 등장하고,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는 생[명]수 담화가 등장하고, 십자가 죽음에서는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음을 보도한다.<sup>51)</sup> 주목

라고 간파하고 있다.

48) 참조, A.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134.

49) R. E. Brown, *The According to John XIII-XXI*, 923; R. E. Brown, *The According to John I-XII*, 58 참조.

50) J. M. Lieu,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70.

51) G. S. Sloyan, *John: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213. 슬로얀(G. S. Sloyan)은 물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는 피의 중요성(요 6:53-56)을 간파한다.

할 것은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생수의 강]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필자 첨가)”라는 요한복음 7:39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한다. 따라서 부활 후, 즉 영광을 받으신 후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에서 여자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사 성령을 주신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요 20:22). 요한복음은 “교회에게 내리신 성령의 선물을 예수와 그의 제자들 간의 개인적 관계의 궁극적 절정으로 나타낸다.”<sup>52)</sup>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의 여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증인 공동체, 곧 교회를 나타낸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 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말하는 요한1서 5:6-8은 이 점을 다시금 확증한다.

요한복음에서 증인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용이…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계 12:17).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요한복음 14:21-23에 의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자’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요 14:21-23).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여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함의한다. 이 함의성은, 앞서 논의한 바, 마지막 장면에서 ‘여자’라 불리는 예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증인공동체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household of God)을 이루는 것으로 제시된다.<sup>53)</sup>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52) C. H.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227.

53) 참조, R. Zimmermann, “Imagery in John: Opening up Paths into the Tangled Thicket of John’s Figurative World”, 41; J. M. Lieu,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70; 최홍진, 『요한복음』, 268.

의 요한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에 있다.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요한은 이러한 관점을 두 증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익명성으로 드러낸다. 예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익명성의 특징은 사랑이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요, '사랑하시는 제자' 역시 그 익명성이 이를 대변한다. 이 사랑의 특징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입증된다. 요한공동체의 언어와 이미지의 공통적 전승은 그룹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54)</sup> 그러므로 "참된 포도주란 예수의 열린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윈(A. Grün)의 해석은 정당하다.<sup>55)</sup>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의 증인공동체의 탄생, 즉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예수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맡긴 일의 완성이요, 성경을 이루는 일이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요 19:28). 예수의 이러한 위임은 이 땅에서의 그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서사에서 드러난 '여자'의 이미지는 '본문 타당성'(textual plausibility)과 요한공동체의 '언어 관습적 타당성'(conventional plausibility)을 보여준다. 창세기 3:15는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의 투쟁을 예언한다: "여자의 자손은 너[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브라운은 "요한계시록이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상호대적하며 여자가 뱀과 맞서는 창세기 3:15에 예시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한다.<sup>56)</sup>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은 예수의 '때'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때임을 분명하게 제시한다(요 12:31). 요한문서에서 여자는 창세기 3장을 그 배경으로 함이 분명하다.<sup>57)</sup> 이러한 요한복음의 'γύναι'라는 용어가 가지는 특징은 요한문서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사용됨으로써 한 공동체의 언어 관습적 타당성 또한 입증한다.<sup>58)</sup>

54) W. A. Meeks,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JBL* 91 (1972): 44-72; M. De Jonge, "Christology, Controversy, and Community in the Gospel of John", D. G. Horrell and C. Tuckett, eds., *Christology, Controversy, and Community: NT Essays in Honor of D. R. Catchpole* (Leiden: Brill, 2000), 209-229.

55) 안셀름 그윈, 『예수, 생명의 문』, 59.

56)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107.

57) 대표적 학자로는 E. C. Hoskyns, "Genesis I-III and St. John's Gospel", 211-213;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108; C. R. S. Siliezar, *Creation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London; Bloomsbury T & T Clark, 2015). 브라운은 요한복음 1-2장에는 창세기의 첫 부분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주장한다.(R. E. Brown, *The According to John I-XII*, 108); 참조, J. M. Lieu,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74-75.

58) 참조, R. Zimmermann, "Imagery in John: Opening up Paths into the Tangled Thicket of John's

### 3. 나가는 말

실제적 화용론의 입장에서 ‘ $\gamma\upsilon\nu\alpha\iota$ ’가 ‘어머니’로 번역되어야 하는 요구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gamma\upsilon\nu\alpha\iota$ 는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보다 더 많은 애정을 담고 있는” 극존칭적 표현도 아니며,<sup>59)</sup> 어머니라는 번역 또한 요한복음의 문학적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gamma\upsilon\nu\alpha\iota$ 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의미하는 용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sup>60)</sup>

요한복음의  $\gamma\upsilon\nu\alpha\iota$ 의 문제는 ‘본문 타당성’과 요한공동체의 ‘언어 관습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상징성에 있다.  $\gamma\upsilon\nu\alpha\iota$ 는 혈연이나 애정을 담아내는 표현이 아니라 산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여자’를 가리킨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이해를 ‘여자’로 일컫는 예수의 어머니에게 적용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더불어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gamma\upsilon\nu\alpha\iota$ 는 요한의 특징적인 표현으로서 번역에 있어서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거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한복음의  $\gamma\upsilon\nu\alpha\iota$  연구는 일평생 성서 번역에 헌신한 나이다가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었던 안건으로 성서 번역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한다. 하지만  $\gamma\upsilon\nu\alpha\iota$ 에 대한 이해는 성서 번역에 있어서 텍스트의 역사적, 정치적, 지정학적, 사회문화적(참고, 버네킹) 요소 이외에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의 문맥적 정황과 이러한 텍스트 배후와 앞의 신앙 공동체이다. 동시에 번역자(또는 번역팀) 역시 여러 필수적 요소들을 평가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주제어>(Keywords)

‘귀나이’, 요한복음 2:4, 상징, 본문 타당성, 언어관습적 타당성.

$\gamma\upsilon\nu\alpha\iota$ , John 2:4, symbol, textual plausibility, conventional plausibility.

(투고 일자: 2022년 1월 27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8일)

Figurative World”, 1-46, 특별히 20-24.

59) 각주 17 참조.

60) 각주 30 참조.

<참고문헌>(References)

- 그린, 안셀름, 『예수, 생명의 문』, 김선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 네페, 거트 M.,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김형동 역, 『성경원문연구』 39 (2016), 434-447.
- 배재욱, “요한복음에 나오는 γύναι에 대한 소고”, 『신약논단』 9:3 (2002), 779-786.
- 버네킹, 스티브, “번역사회학과 번역가의 핵심적 역할”, 김형동 역, 『성경원문연구』 41 (2017), 304-324.
- 최홍진, 『요한복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포드, J. 매싱버드, 『요한계시록 A』, 앵커바이블,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Bengel, J. A., *Gnomon novi testamenti: in quo ex nativa verborum vi simplicitas, profunditas, concinnitas, salubritas sensuum coelestium indicatur*, Tübingen, 1855.
- Brodie, T. 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Brown, R. E., *The Community of the Beloved Disciple: The Life, Loves and Hates of an Individual Church in New Testament Times*, New York: Paulist Press, 1978.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The Anchor Bible 29, New York: Doubleday, 1966.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XXI*, The Anchor Bible 29A, New York: Doubleday, 1970.
- Bultmann, 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G. R. Beasley-Murray, trans., London: SCM Press, 1955.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Leicester: Apollos, 1991.
- Culpepper, A.,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 De Jonge, M., “Christology, Controversy, and Community in the Gospel of John”, D. G. Horrell and C. Tuckett eds., *Christology, Controversy, and Community: NT Essays in Honor of D. R. Catchpole*, Leiden: Brill, 2000, 209-229.
- Dickey, E., *Greek Forms of Address: From Herodotus to Luci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Dodd, C. H.,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 Frey, J., van der Watt, J. G. and Zimmermann, R., eds.,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Terms, Forms, Themes, and Theology of Johannine Figurative*

- Language*,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Horrell, D. G. and Tuckett, C., eds., *Christology, Controversy, and Community: NT Essays in Honor of D. R. Catchpole*, Leiden: Brill, 2000.
- Hoskyns, E. C., "Genesis I-III and St. John's Gospel",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1 (1920), 210-218.
- Kittel G. and Friedrich G.,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1, Grand Rapids: Eerdmans, 1964.
- Koester, C. R., *Symbolism in the Fourth Gospel: Meaning, Mystery, Community*, 2<sup>nd</sup>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Lee, D. A., *The Symbolic Narratives of the Fourth Gospel: The Interplay of Form and Meaning*, JSNTSup 95, Sheffield: JSOT Press, 1995.
- Lieu, J. M., "The Mother of the Son in the Fourth Gosp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7:1 (1988), 61-77.
- Louw, J. P. and Nida, 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McHugh, J., *The Mother of Jesu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5.
- Meeks, W. A.,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1 (1972), 44-72.
- Newman, B. M. and Nida, E. 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John*, UBS Helps for Translators 26,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80.
- Nida, E., *God's Word in Man's Language*, San Francisco: Harper & Low, 1952.
- Schnackenburg, 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C. Hastings et al., trans., New York: Seabury Press, 1980.
- Siliezar, C. R. S., *Creation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London: Bloomsbury T & T Clark, 2015.
- Sloyan, G. S., *John: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Strachan, R. H., *The Fourth Gospel: Its Significance and Environment*, 3<sup>rd</sup> ed., London: SCM Press, 1941.
- Voinov, V., "Pronominal Theology in Translating the Gospels", *The Bible Translator* 53:2 (2002), 210-218.
- Voinov, V., "Revisiting Vocative γούνα in John 2:4: A Plea for Linguistic Realism", 「성경원문연구」 42 (2018), 157-172.
- Watts, R. J.,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Wendland, E. R. and Nida, E. A., "Lexicography and Bible Translation", J. P. Louw ed., *Lexicography and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on*,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5, 1-52.

Wheelwright, P. E., *Metaphor and Real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2.

Zimmermann, R., "Imagery in John: Opening up Paths into the Tangled Thicket of John's Figurative World," J. Frey, J. G. van der Watt, and R. Zimmermann, eds.,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Tübingen: Mohr Siebeck, 2006, 1-46.

<Abstract>

## The Understanding and Translation on ‘γύναι’ Revisited in the Gospel of John

Hyung Dong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is article revisits the use of γύναι in the Johannine Gospel (2:4; 19:26), and asks why Jesus addresses his mother as *woman* from the literary context perspective. Eugene Nida had long argued that γύναι was a common highly respectful address form for *mother*. But Gert Knepper argues, “Nida for long time did not realize the real problem with γύναι.” Recently Vitaly Voinov tried to rebut Knepper’s argument. He also argues for translating γύναι as *mother* in the light of pragmatics and corpus analysis.

But the article shows that within exegetical research, the use of γύναι is recognized as a symbol by means of two criteria, *conventional plausibility* and *textual plausibility*, which Ruben Zimmermann suggested to identify symbols. Symbols are only defined by way of the conventions of a linguistic community, and can only be recognized through evidence from the text itself.

Γύναι is a recurring image throughout the Gospel. It is named for the sake of *inclusio* at the first sign and the last. Γύναι has a traditional, compositional-technical, theological function within the literary work, which is characterized as a woman who gives birth to a child like the Old Testament themes of Lady Zion’s giving birth to her offspring. Γύναι is not an expression of proper filial respect. Within the literary context of the Gospel of John, γύνη represents those who bear the words of Jesus and witness the death of Jesus as his love caring for his own to the end (cf. 13:1). The Gospel of John, therefore, applies this tenor of expression to Jesus’ mother in relation with the beloved disciples, who constitute the new family of faith and are now called *brothers* (20:17). The writer argues as Knepper does,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γύναι be translated with a term meaning *mother*.”